

100개 中企 입주, 3000명 일자리... 파주 '파평산단' 첫 삽

장파리 일대 면적 60만6060㎡
금속·전자부품·가구 기업 등 입주
3.3㎡당 분양가 95만원 인근 절반
서울 상암까지 30분 '최적의 입지'
지역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파평산업단지개발은 6일 오전 경기 파주 장파리에서 파평산업단지 착공식을 가졌다. (왼쪽 5번째부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고병헌 파평산업단지개발 대표 등 참석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 전진기지가 경기 파주에 터를 잡았다. 첫 삽을 뜬 후 2년 여의 기간 동안 100여개 기업이 들어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 연간 총 7000억원의 생산과 3000여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다. 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파주 장파리에 위치한 파평산업단지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터파기 공사에 들어갔다. 파평산업단지개발이 2007년부터 추진해온 파평산업단지는 순수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로서 장파리 산 2-1번지 일대 60만6060㎡(약 18만평) 면적에 금속, 전자부품, 전기·기계, 인쇄·출판, 자동차·트레일러, 가구, 의료 등 분야의 제조업과 물류창고 등 100여개 중소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다만 임진강이 가까워 폐수가 많이 나오는 식품 제조 등 일부 업종은 들어설 수 없다. 파평산업단지개발 고병헌 대표는 "파평산업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고 서울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향후 재개발을 희망하는 개성공단 등으로 이동이 매우 편리해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파평산업단지의 분양가는 3.3㎡(1평)당 95만원으로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인 파주센트럴밸리나 파주법원

2산업단지 분양가(평당 18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한강 이남에 있는 김포학운산업단지는 평당 240만~300만원에 분양한 바 있다. 최적의 입지도 갖췄다. 파평산업단지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당동 IC에서 국도 37호선과 바로 연결돼 서울 상암까지 약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서울 시내 진입도 40~50분이면 충분하다. 통일로로 불리는 국도1번선과 제2자유로, 현재 공사중인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파평산업단지가 들어서는 파주 장파

리 일대는 파주시 접경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이 순항하고, 기업들이 본격 입주하게되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교류의 관문에 자리를 잡고 있어 개성공단 등 향후 남북경제협력에 재개될 경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첨병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헌 대표는 "산업단지 편입토지 보상 과정에서 많은 토지소유자 및 지역 주민들께서 보내주시신 협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을 끝내고, 우량기업을 유치해 접경지역 중 가장 낙후된 파주 북부지역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2000년 수원고색1차산업단지(33만㎡)를 시작으로 아파트형 공장 설립과 2010년 파주적성산업단지 1단계(46만8000㎡), 2015년 착수한 파주적성산업단지 2단계(13만5000㎡)를 지난해 성공적으로 조성, 준공해 조기에 90% 이상의 분양을 완료한 산업단지 조성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열린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착공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최중환 파주시장, 시·도 의원 등 파주시 기관 단체장과 파평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이 참석해 산업 조성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한편 중소기업회는 이와 별도로 국가산업단지에도 모든 업종이 제한없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부장 기술 협력 기관에 'KETI·KA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

중기부, 유망벤처 기술개발 촉진 협력과제에 3년간 12억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부장 전략협력 기술개발' 사업 운영기관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선정했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부장 전략협력 기술개발'은 올해 새로 도입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인프

라, 인력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소부장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기관과 소부장 기업의 협력과제에 최대 3년, 12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은 연구기관 6곳, 대학 3곳 등 총 9곳이 신청해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역량과 운영전략 등을 평가해 최종 2곳을 뽑았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우수한 내부

인적·물적 인프라와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기여역량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은 과제기획을 위한 전담 인력의 전문성과 후보과제 발굴역량에서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시장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발굴해 기술제안요청서를 기획하고,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등 기술개발 플랫폼으로써 기술개발 수요에 따라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한샘, '하나 인테리어 대출' 서비스 시행

부엌·욕실 제품에 적용

한샘의 인테리어 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수 천만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나눠낼 수 있게 됐다. 한샘은 하나은행과 손잡고 금융대출로 구매할 수 있는 '하나 인테리어 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리모델링 공사를 저리의 은행 대출로 구매할 수 있어 집 전체 리모델링부터 부엌 및 욕실 공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하나 인테리어 대출' 금융 서비스는

한샘 리하우스 '스타일 패키지(Style Package)' 상품과 '키친바흐(Kitchen Bach)', '유로(Euro)' 등 부엌, 욕실 제품에 적용된다. 30평형 아파트를 평당 100만원대의 한샘리하우스 '스타일 패키지'로 리모델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000만원의 공사비용이 든다. 공사비용 전체를 '하나 인테리어 대출'로 마련한다면 최장 60개월 동안 3000만원 대출 금액대의 최저 금리 2.6%를 적용하면 고객은 매달 53만원의 비용으로 집 전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현대L&C 차음 바닥재 '소리지움 5.0' 출시

현대L&C가 프리미엄 차음 바닥재 '소리지움 5.0'을 출시했다. 현대L&C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소리지움 5.0'은 고탄성 프리미엄 쿠션층이 적용된 차음 바닥재로 기존 제품인 '소리지움 4.5'보다 두께를 0.5mm 늘려 차음 효과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제품은 상치층(표피) 강도를 높여 굽힘이나 찌힘에 강하고 표면 마찰 정도를 측정하는 'BPN(British Pendulum Number)' 지수도 46으로 국내 평지용 바닥재 기준(40BPN) 대비 15% 높아 미끄럼 방지 효과도 뛰어난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과 대한야토피



현대L&C의 바닥재 '소리지움 5.0'이 시공된 거실. 협회 아토피 안심 마크를 획득해 친환경적이다. 4대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모두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며 황색포도상구균이나 폐렴균에 대한 항균 기능도 갖췄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유럽 '박스터' 제품 선보

에이스침대가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리빙관에 유럽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박스터(Baxter) 제품을 선보인다. 에이스침대는 오는 8월31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8층에서 에이스침대가 운영하는 명품가구 멀티샵 에이스아venue(ACE AVENUE)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유럽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박스터'의 트렌디한 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박스터는 가죽을 이용한 클래식 가구 디자인으로 각광받는 이탈리아의 컨템포러리 가구 브랜드다. /김승호 기자

"납입금 60만원, 네이버페이로 받아요"

교원그룹, 'N라이프 380' 상조상품
교원그룹 상조회사 교원라이프가 MZ세대로 고객층을 넓히기 위해 상조 납입금의 최대 60만원을 네이버페이로 돌려주는 상품을 내놨다. 교원라이프는 네이버페이와 제휴해 합리적인 요금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네이버페이 적립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는 'N라이프 380' 상조상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N라이프 380'은 네이버페이와 제휴를 통해 매월 납입금액 중 1만원을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적립 해

택은 최대 30개월까지 제공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MZ세대를 공략한 제품인 만큼 판매 채널도 온라인 전용으로 선보인다. 교원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1인당 2구좌까지 신청할 수 있다. 2구좌 가입 시 최대 60만원의 네이버페이 적립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N라이프 380' 상품은 장례전문 의전팀 지원부터 장례용품, 빈소, 리무진, 행정서비스 등 토털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낙연 "소수 토지 독점 불공정"... 토지공개념 3법 내주 발의 /사진 뉴스스
▲ "여성가족부 필요하나?" 유승민 "대통령되면 폐지"

▲ 홍준표, '이재명 점령군' 발언에 "주사파 발언이자 이적행위"
▲ 통일부 "한미훈련, 대화 여건 조성 등 종합 고려해야"



▲ "모든 지원 다하겠다" 통일부, 교황 방북 지지 재확인 /사진 뉴스스
▲ 국수분 "김상조 前실장 전선값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 서울 압구정동 재건